“자살 유족 위로법회, 무상 일깨워 치유 효과”

조계종 포교원, 종책 연찬회
‘자살 유가족 돌봄 · 치유’ 주제
성림사 현담 스님 사례 발표
3년간 유족 위로법회 봉행해
만족도 최상…“내면 위로됐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그렇게 될 때까지 가족들은 뭐 했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죽을 용기로 살아가면 되지!”

차가운 시선에 내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살 유족에게 꼭 필요한 건 떠난 이들과의 재회, 위로, 이해다. 자살 유족을 위해 3년간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위로법회)’를 봉행해온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사진〉은 “자살 유족의 내면을 치유하는 위로법회는 부처님의 고집멸도 사상과 생사윤회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담 스님은 10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84차 포교종책 연찬회 ‘생명존중과 전법-자살 유가족 돌봄과 치유’ 발제자로 참석해 위로법회와 관련한 활동 내용과 성과를 들려줬다.

위로법회는 자살 유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17~2019년 3차례 진행됐다. 각 법회에는 스님과 재가자 56명, 38명, 20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입재, 위로, 공감 나누기, 회향 순으로 구성됐고, 성림사 회주 광용 스님(전국비구니회장)과 현담 스님이 의식을 맡았다.

입재식에서 주관스님들은 떠난 이의 심경과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발원·축원을 올린다. 법문에서도 외아들을 잃은 끼사 고따미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부처님 말씀을 일러준다.

이어 위로의식에서는 등공양, 영가 초청 및 유족 인연자 맞이, 위패 쓰고 올리기, 자애경·자비관·회향공덕 합송으로 떠난 이를 애도·천도한다. 특히 영가 초청 및 유족 인연자 맞이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슬프고 애틋한 마음을 전달한다. 위패에도 영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방황하는 영혼을 안주시켰다는 안도감을 준다.

‘동병상련’의 공감대를 가진 자살 유족들 간 명상을 통해 회한을 풀어내는 시간도 있다. △우선멈춤 △본명상 △역할극 △공감나누기 마무리 명상으로 자기 애착심, 집착심, 슬픔, 수치심, 미안함 등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직면하고,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헤아려 본다. 법회는 유족이 영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위패 소전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위로법회에 대한 자살 유족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의식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마음의 위로가 됐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90%, 그렇다가 10%로 나타났다. ‘의식 참가 후,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20%로 자살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됐다. “다시 한번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주변 사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법회였다”는 소감도 남겼다.

현담 스님은 “위로법회는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애환과 치유를 함께 나누면서 고통받는 이들과 내가 하나임을 알고, 모든 생명은 나고 죽고 윤회한다는 본뜻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논평을 맡은 이경애 심리상담소장은 “위로법회를 전국에 있는 사찰 스님들과 공유하고 토론과 교육을 통해 더욱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다듬어, 전국 각지 사찰에서도 위로법회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대웅전 조성 불사 ‘첫발’

10월 26일 신축부지서 기공 법회
대웅전 조성 35년 숙원사업 시작
1800평 부지에 대웅전 등 조성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이 대웅전 불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0월 26일 경내 대웅전 신축터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사부대중 1500여 명의 염원을 담아 대웅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1988년 10월 30일 광주시 소태동에 건물을 임대하며 첫 포교를 시작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어려운 포교 여건에서 마음공부를 시작했고, 1989년 계림동 주택으로 자리를 옮겨 마음공부를 이어갔다. 1994년에는 현재의 서구 치평동으로 옮기며 본격적으로 광주 지역 포교에 나섰다. 묘공당 대행 선사가 당시 법당 신축에 증명법사로 참여해 축원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10월 26일 대웅전 불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주인공을 찾는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대웅전 기공식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35년을 해원(解願)하는 순간이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불심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불사를 해내고 있는 것은 광주지원 스님들과 신도님의 큰 노고가 있었다”며 “30년 전에 어려운 여건에서 현재의 법당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대웅전 불사를 원만회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솔 스님도 축사를 통해 “대웅전 조감도 외관을 보더라도 광주지원 스님들과 신도들의 고운 마음이 담겨있다”면서 “광주지원은 도심에 있어서 늘 누군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주인공을 찾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법당에서 열린 사시예불에 이어 대중들은 대웅전 신축부지 기공식장으로 이동하고, 첫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이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큰스님께서 ‘더불어 공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광주에 내려왔다. 광주는 힘들고 아픔이 많은 곳이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씨앗은 큰스님이 뿌려주셨고,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한마음으로 대웅전 불사를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대웅전 불사를 위해 25년 전부터 인근 주택과 상가 등 1800여 평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020년 2월 대웅전 불사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사 성보, 국가유산 지정 추진 ‘첫발’

태고종 총무원, 10월 26일
‘백련사 불교유산’ 학술대회

서울 삼각산 백련사(주지 동허 스님)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은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백련사 불교문화유산을 국가유산과 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삼각산 정토백련사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는 ‘백련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조선왕실 원당으로서 백련사의 역사를 조명했다.

탁 교수는 “백련사는 성종 대에 왕실원당으로 지정된 이래 19세기까지 계속 왕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면서도 “하지만 백련사라는 사액명 대신 근현대까지도 ‘경티절(정토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서울 지역 불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명소로 각광받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고양특례시 학예연구사는 ‘서울 백련사 동종 연구’를 통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이하 백련사 동종)’의 문화유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 태고종은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적 가치를 조명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학술대회 이후 백련사의 전통사찰 지정 추진과 더불어 ‘백련사 융경삼년명 동종’(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 신청을,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권속 일괄’(비지정)과 약사전, 대방 등에 봉안돼 있는 중요 성보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백련사 불교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활용되고 있음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백련사가 태고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사노위,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행진 동참

10월 26일, 이태원역 1번 출구서
4대종교 추모식, 추모 행진 참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0월 26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대 종교 추모의식’에 뜻을 함께 했다.〈사진〉

추모의식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과 종교계 참가자들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해밀튼호텔 골목에 헌화하며 희생자 159명의 넋을 기렸다. 불교계에서는 사노위원 고금·덕인·시경·도승·동신·일행·법정 스님과 더불어 조희주·유금신·박정숙 사노위 재가활동가가 참석해 추모했다.

추모기도는 희생자 159명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시 59분에 시작됐다.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유가족과 시민분들의 힘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재판과 특별조사 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졌다”면서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이며, 사법부는 재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이 있음을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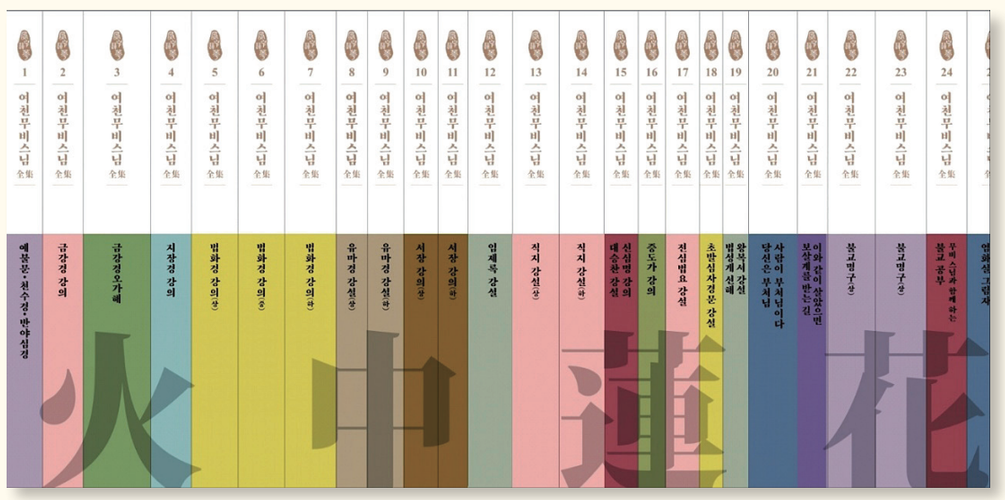
추모의식을 마친 후 용산역 대통령실에서 서울광장까지 8km의 추모행진을 진행했다. 600여 명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가령 기자

火中蓮華 무비큰스님 전집출간 봉정법회

금정총림 범어사 주최,명심회 주관으로 여천 무비큰스님 전집 화중연화 출간 봉정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불꽃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화중연화’전집으로 1권 예불문,천수경,반야심경 시작으로
금강경, 법화경, 임제록강설,직지강설 ,증도가 초발심자경문,불교명구와 염화실 그림자 25권의 방대한 전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비 큰스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전집 봉행법회에 스님,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범어사 보제루
■ 문 의 : 051-508-3043
■ 주관·주최 : 금정총림 범어사, 명심회

염화실TV 0907